

문화산업 투자진 흥지구 어떻게 조성되나

구도심 건물 리모델링 문화기업 유인

3년 이상 미적었던 문화산업 투자 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지정이 확정되면서 광주시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은 물론 지구 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시설물 설치 방안 등의 가닥이 잡히면서 광주에 문화기업들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현황 및 조성 방안

지구	위치	면적	조성 방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동구 금남로, 충장로 등	28만2433㎡	공실률 높은 5층 이상 빌딩 25개 선정 후 리모델링 지원, 기업 유인 등
CG센터	남구 송암동	1만5536㎡	디지털방송지원센터 신규 건물
금호생명빌딩	서구 양동	8만3489㎡	임대 공간 리모델링

남구 송암동 디지털방송지원센터 입주 기업들 파격적인 세제 혜택

조합 결성' 등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조성되나=이번 진흥지구 지정의 최대 수혜자는 구도심권이다. 애초 추진단이 설정한 1만5283㎡에서 28만2433㎡로 면적이 대폭 늘어나면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충장로의 대부분이 구역 내에 들어가게 됐다.

추진단과 광주시는 이 구역 내 공실률이 높은 5층 이상 건물 25동을 일단 선정해 리모델링과 스마트 웹 개발센터 설치, 문화기업 유인책 마련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20% 이상으로 추정되는 구도심의 공실률이 크게 낮아지고, 새로운 유동인구의 진입으로 인해 도심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 서구 양동 금호생명빌딩 역시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지만, 준공된 지 10년밖에 안 된 건물이라는 점에서 그 지원 규모는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4년까지 구도심과 금호생명빌딩에 투입되는 예산은 460억원에 달한다.

340억원이 소요되는 남구 송암동 CGI(Computer Generated Imagery, 컴퓨터영상합성기술)센터 주변에는 디지털방송지원센터가 새로 들어선다. 이미 광주시가 센터 주변 39만 4000㎡를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 남구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진흥지구 지정과 신규 센터 설립은 클러스터의 양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 지정 이후 절차와 기업 혜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의 투자진흥지구 심의, 문화관광부장관 결재를 거친 진흥지구 지정안은 다음주에 행정안전부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내년부터 광주시와 추진단은 15억원의 예산으로 우선 사업을 시작하고, 2012년부터 예산을 대폭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리모델링 및 문화기업 유인 등에 투입되는 460억원 이외에 디지털방송지원센터 신규 설립이 확정될 경우 2014년까지 진흥지구 조성에 1000억원이 넘게 투입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지구 내에 입주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등 국세를 3년간 전액 면제, 2년간 50% 면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전액 면제되고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서도 전액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정금액(3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업체의 경우 고용 보조금과 시설비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도심 이전 절차와 기업 혜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이후에 따라 한나라당은 4대강·무상급식 등에 대한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2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정부 원안을 토대로 여야의 입장이 반영된 안을 심사키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당의 정책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6일 예정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의 예산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원안에서는 5월 다른 야당과 재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광장에서 4대강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후에 따라 한나라당은 4대강·무상급식 등에 대한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2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정부 원안을 토대로 여야의 입장이 반영된 안을 심사키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당의 정책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6일 예정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의 예산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원안에서는 5월 다른 야당과 재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광장에서 4대강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후에 따라 한나라당은 4대강·무상급식 등에 대한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2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정부 원안을 토대로 여야의 입장이 반영된 안을 심사키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당의 정책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6일 예정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의 예산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원안에서는 5월 다른 야당과 재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광장에서 4대강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4대강·무상급식 대립...예산안 난항

오늘부터 국회 예결위 심사...5개 상임위 심사도 못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가 2일부터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상당수 상임위원회가 여야 이견으로 소관 부처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법제처, 대법원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예산안을 의결한 상임위는 총 16개 가운데 10개에 불과하다. 국토해양위원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환경노동위원

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최소 5개 위원회는 상임위 의결 없이 바로 예결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국토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 대립으로 파행을 겪은 이래 아직까지 예산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교과위는 1일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와 기상청 예산안을 지난달 30일 의결했지만 환경부 예산은 4대강 사업과 관련, 수질 오염물질인 총인(T-P) 처리 시설 예산과 물이용 부담금 인상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4대강·무상급식 등에 대한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2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정부 원안을 토대로 여야의 입장이 반영된 안을 심사키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당의 정책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6일 예정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의 예산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원안에서는 5월 다른 야당과 재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광장에서 4대강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후에 따라 한나라당은 4대강·무상급식 등에 대한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2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정부 원안을 토대로 여야의 입장이 반영된 안을 심사키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당의 정책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6일 예정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의 예산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원안에서는 5월 다른 야당과 재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광장에서 4대강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후에 따라 한나라당은 4대강·무상급식 등에 대한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2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정부 원안을 토대로 여야의 입장이 반영된 안을 심사키로 했다.

與 '호남예산 지킴이' 이정현 의원 당지도부 약속 위반 예결위 제외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광주·전남지역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서갑원, 장병완 의원 등이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여당의 '호남 예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던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지도부의 '약속 위반'으로 계수조정소위 참여가 배제됐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한나라당 8명, 민주당 5명, 비교섭

단체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한나라당에서는 예결위위원장인 이주영 의원과 예결위 간사인 이종구 의원을 비롯, 서상기, 신상진, 권성동, 김광림, 여상규, 이종혁 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민주당은 예결위 간사인 서갑원 의원과 장병완, 신학용, 정병규, 전병현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교섭단체에선 자유선진당 김

낙성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대표 등이 포함됐다.

한편, 여당의 '호남 예산 지킴이'로 맹활약했던 이정현 의원은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발탁하겠다는 당시 지도부의 약속을 믿고 기고 상임위원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동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이 구성된 한나라당 지도부는 '3년 연속 예결소위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정현 의원을 예결소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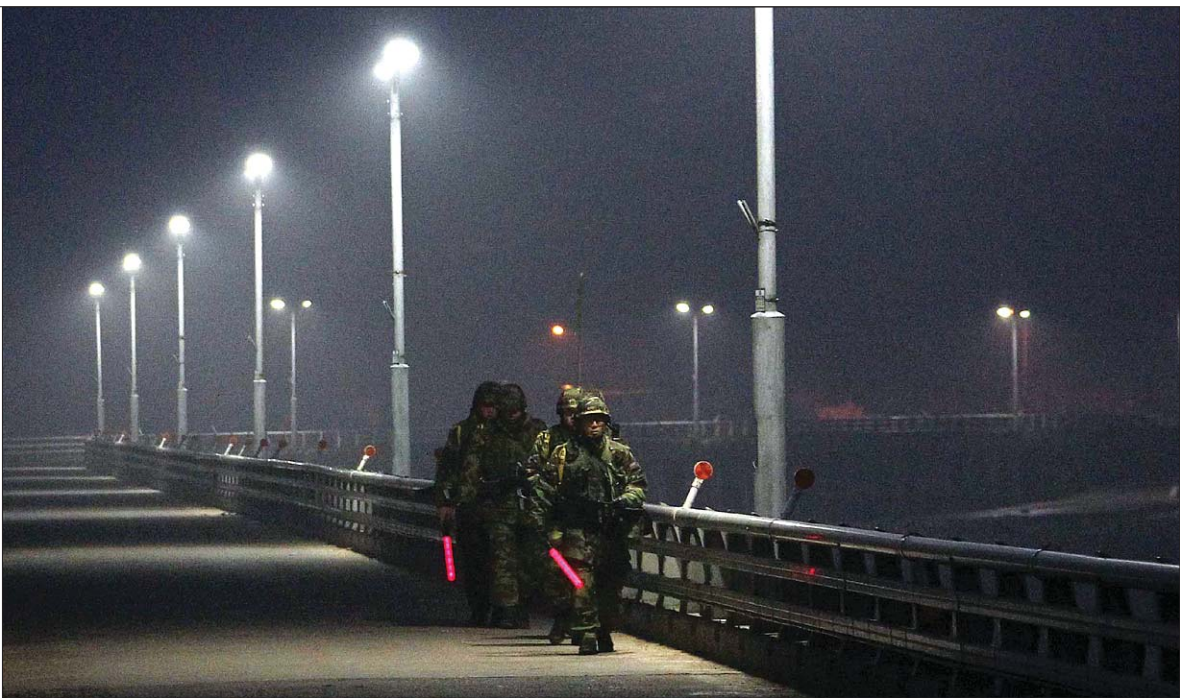
이후에 따라 한나라당은 4대강·무상급식 등에 대한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2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정부 원안을 토대로 여야의 입장이 반영된 안을 심사키로 했다.

한미연합훈련 종료

한국과 미국의 첨단 전력이 대규모로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서해 연합훈련이 1일 오후 막을 내렸다.

한미는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미국 7함대 소속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수상함과 전투기 등 해상과 공중의 입체전력을 투입해 대공방어와 해상자유공방전, 해상차단훈련 등을 고강도로 실시했다.

연합훈련 마지막 날인 이날 양군은 북한군의 전투기와 수상함의 아군 전력을 위협하는 상황을 가정해 기동중인 함정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기동군수훈련과 항모강습단 호송 작전을 진행했다.



서해 한미연합훈련 마지막날인 1일 새벽 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인개를 가르며 해안경계 순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편 6곳·보도 5곳 사업자 신청 방통위 '연내 선정 마무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용사업자 신청서류를 접수한 결과 실제 신청서류를 제출한 사업자는 중편 6곳, 보도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간지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계열사로 둔 중앙미디어네트워크, 그리고 경제지인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등 5곳의 언론사 중심 컨소시엄과 ▲태광산업을 최대주주로 한 케이블연합 컨소시엄이 1일 중편신청 서류를 방통

위에 제출했다. 또 보도채널사용사업자로는 ▲연합뉴스 ▲CBS ▲머니투데이 ▲서울STV ▲헤럴드경제 등을 각각 최대주주로 한 5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류를 냈다.

방통위는 사업자 신청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중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이 포함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심사계획'을 의결한 뒤 관계기관 의견조사와 시청자 의견 청취,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거쳐 최종 승인대상

법인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연내 중편 및 보도채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통위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이를 목표로 향후 일정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개별 사업자의 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방통위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각 사업회망자가 제출한 구비서류에 기본적인 허자가 없는 만큼 모든 사업자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제역, 모두가 힘을 모으면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가축전염병입니다.

- 구제역은 인체에 무해하므로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습니다.

구제역 극복에는 국민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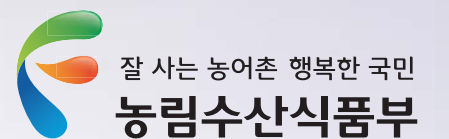
-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발생지역과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축산농가는 농장 소독을 강화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 모임은 자제하고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단방역과 소독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합니다.
- ✓ 구제역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 ✓ 구제역에 감염된 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습니다.
- ✓ 구제역 방역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국민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림수산물부



이 광고는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하여 제작, 게재하였습니다.